



[산업]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공급 체계 확보 05



Life

[유통] 유모차·기저귀 등 친환경 소재 맞춤형 제품 인기 1



“서울을 서울답게” 박원순의 구상, 더 깊은 변화 이끈다

민선7기 자문위원회 구성
미래·상생·사람·안전·일상 등 6가지 분과 나눠 4년 청사진 그려
위원장에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각 분야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촉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위원장, 분과위원장, 참여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선 7기 4년간의 시정 방향과 핵심정책을 담은 청사진 만들기에 본격 착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 '더 깊은 변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5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미래·상생·사람·안전·일상·민주 등 6가지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와 서울시는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 시장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비롯, 민선 5·6기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을 아우르는 시정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성준 정무부시장, 박양수 서울시 정무수석, 광현 소통전략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을 비롯, 서울시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 51명이 위촉식에 참석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분과별 위원장에는 이병현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미래분과위원장)·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도시)·박봉성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사람)·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환경)·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문화)·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민주) 등이 위촉됐다. 6개 분과는 앞으로 민선 7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기획위원

회를 두어 전체 핵심과제를 총괄한다. 박원순 시장은 위촉식에서 "3선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했다. 우리의 결정, 하나의 정책으로 많은 시민의 운명이 바뀐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께 별로 드리는 게 없다. 열정페이 강요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이 정책이, 이 결정이 앞으로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태수 위원장은 "우리 집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오늘 아침 폐지

를 한가득 싣고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분들의 행렬을 볼수 있었다. 아직도 덜컹 눈을 비비며 오늘은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하는 기대하며 컷터문을 여는 분들도 볼수 있었고, 미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학교로 걸음재촉하는 청소년들 볼수 있었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7년 동안 시민들 고단한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해보면 자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그동안의 7년이 매우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한다. 제 표현대로라면 민생의 물줄기를 여기저기에 넣었다. 영세민들, 65세 이상 어르신을 찾고,

50대 퇴직자들을 찾아가는 등 여러 일들을 해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10년 완성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물줄기를 잇고 깊고 넓게 확장해 서울 전체에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이야기드리고 싶다. 전문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초유의 10년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자. 각자 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연대하고 신뢰하면서, 동지적 우애를 가지면서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자"며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와 더 깊은 변화 위원회는 앞으로 민관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계획안을 오는 9월 초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분과별로 박 시장의 공약 사항들을 검토해 정책방향과 계획들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될 공약 목록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IoT기술 활용 공유주차제 도입', '대기질 개선대책', '아시아 최고 음악도시 서울',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카드수수료 경감 서울페이 도입' 등 60여 가지가 있다. /오전회 기자 valere@metroseoul.co.kr

물싸움 하고 종이배 타고... 한강서 물놀이 즐겨볼까 평창 월정사 불전건축 '적멸보궁' 보물 지정

20일 '한강 몽땅 여름축제' 개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영화를 관람하거나 종이배로 강을 건너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2018 한강 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한여름 강의 예술놀이터'를 주제로 총 80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59개)이 무료로 진행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한강물싸움축제'는 8월 4~5일 난지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투명자켓과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등 10종의 물놀이 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는 '한강수상놀이터'는 7월 20일~8월 19일 여



한강 물싸움 축제 모습. /서울시

1만 명의 시민들과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나이트워크 42K'는 7월 28일 여의도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종이배로 한강을 질주하는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는 8월 10~12일 잠실나들목에서 진행된다.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타고 영화를 관람하는 '시네마풍덩'은 7월 27일부터 매 주 금요일 난지물놀이장에서 운영된다. 축제를 즐기면서 환경보존을 실천할 수 있는 '한강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8월 3~5일 독섬 자벌레 잔디밭), 도심 속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캠페인 '예술동물원 한강 ZOO' (8월 11~12일 여의도 안나센터 앞) 등 생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강몽땅 홈페이지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ik1@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적멸보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지정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 내 불전건축물인 적멸보궁(寂滅寶宮)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月精寺 寂滅寶宮)'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中臺 寂滅寶宮)'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오대산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인 오대산에서 '오대(五臺)'란 중대 진여원,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나한암, 서대 미타암을 뜻한다. 오대산사적에는 이 다섯 건축물이 건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현재는 중대 사자암 및 상원사,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서대 염불암이 위치해 있다.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眞身舍利, 석가모니 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다. 적멸보궁 뒤편의 봉분처럼 쌓인 언덕에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정면.



적멸보궁 내부사건. /문화재청

적멸보궁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이중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내부 건축물은 구조, 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다포식이란 공포(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 등에 짜 맞추어 낸 구조물)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형식을 뜻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적멸보궁의 면적은 381㎡이다. /오전회 기자

세곡119안전센터 개소... 골든타임 확보한다

강남구 세곡·자곡·울현동 일대 관할
서울시는 4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울현동 일대 소방안전서비스를 담당할 '세곡119안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서비스는 수서119안전센터가 담당해 왔다. 이번 세곡119안전센터 신설로 관할지

역인 울현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서는 '안전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세곡지구가 완성되면서 3만5966명이 신규 유입됐다. 주거 인구는 약 4만5000명이며, 수서SRT 역사와 인접해 하루 유동인구가 4만3000명에 달해 소방서비스 수요가 증가해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등 긴



세곡119안전센터 전경. /서울시

급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소방안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